

원도심학교 47교 재지정... 3년 지원

환경 개선·맞춤형 교육과정·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등... 전주·군산·익산의 구도심 위치

전북도교육청이 1기 원도심학교 47교 모두를 2기 원도심학교로 재지정하여 앞으로 3년 더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28일로 사업이 종료되는 1기 원도심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종합평가와 진단을 실시, 47교 모두 2기 원도심학교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24교, 군산 11교, 익산 12교이며,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11교이다. 이들 학교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원도심학교 특성을 반영하는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원도심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7억2,89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각 학교가 원도심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협력형' 33교에 10억6,320만원 ▲'학교 간 협력형' 6교에

2억440만원 ▲'교육동음형' 8교에 2억2,420만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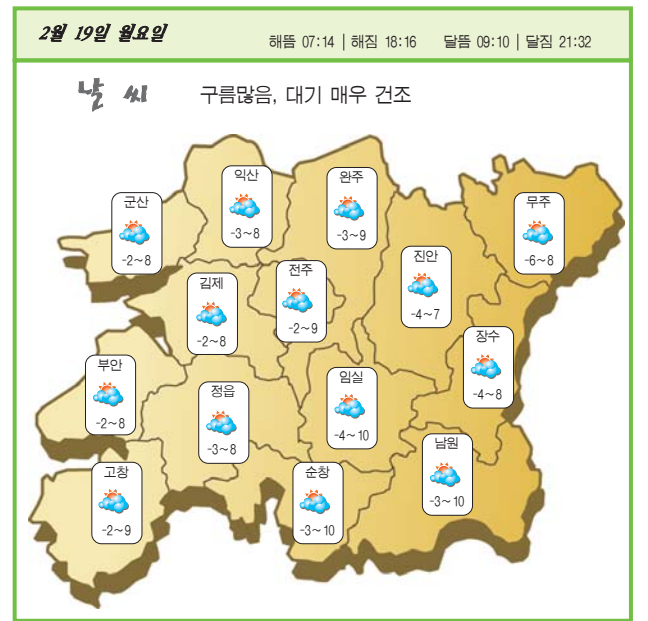
지자체-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및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의 교육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발전협의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학교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학교와 지역 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한 마을 교육과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의 구도심 지역이 중심지역으로서의 매력과 흡입력을 잃게 되어 이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노력체합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전주시는 시민의 행복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개설한 전주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14일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민대학 25개 프로그램을 개설,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핵심을 찌르는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6개 과목의 접수가 마감됐다. 또 총 700명 정원에 500여 명이 접수해 70%의 높은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은 독서동아리집잡이양성과정과 인형극기초, 시낭송, 문예창작반 수강을 원하는 시민들은 남은 자리가 거의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전주시민대학은 관내 11개 시립도서관과 중산작은도서관, 꿈밭장애인도서관 등 총 13곳에서 진행, 독서·자녀교육·인문교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신설 과목으로 △마음심리상담 △영양과 임기토론 △비법으로 여는 한자 세상 등의 과목이 운영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접수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수강료는 월 5,000원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특화된 독서관련 전문 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떼까마귀 지난 16일 김제시 북남면의 한 논에 떼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 다니고 있다.

농어촌학교 385교 교육환경·시설 개선

올해 681억 규모... 통학지원·복식학급 해소 등 다각 노력 벌이기로

도내 농어촌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18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어촌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 사업의 규모는 385교에 총 681억9,531만원이다. 농어촌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해 272교에 통학버스 380대(136억1,657만원), 49교에 통학택시 61대(4억7,777만원)가 지원된다. 통학버스는 통학거리 1km를 넘는 통학생이 13명 이상인 학교에, 통학택시는 12명

이하인 학교에 지원된다.

농어촌 학생들이 ICT 콘텐츠를 활용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습여건도 개선한다. 먼·도서벽지 교교 가운데 ICT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13교를 선정해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60교를 선정,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한다. 전문 직업인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원격영상 진로교육을 해준다.

기속형 교교 13교 중 농어촌에 위치한 8교에 학생 기숙사비, 운영비 등 총 10억9,983만원을 지원하고, 읍면지

역 일반교 기속사 학교 32교에도 6억 8,54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배려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연계학교는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110교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120교로 확대했으며, 예산도 8,000여만원 늘린 4억5,7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인수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복식학급 해소 강사 80명을 지원한다.

전북은 2017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교 766교 중 454교가 농어촌 학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에 김우영 교수

전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김우영 교수(사진)가 제15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월 14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4년간이다. 교육부는 2월 14일자 정부인사발령을 통해 김우영 교수의 총장



임명을 통지하였으며, 김우영 교수는 대학의 화합을 위해 대학 교직원과 함께 오는 20일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부터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신문·방송 주간, 교육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3기 위원 모집

22일까지... 도민 1명·외부 전문가 8명·도의회 추천 1명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임기는 2년.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도민 1명, 외부 전문가 8명, 전북도의회 추천 1명 등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임기는 2년.

외부전문가는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분야)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

메일 등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월 28일 심사 및 심의를 거쳐 3월 2일 위원 선정을 통보하고, 3월 7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발된 위원들은 ▲학생인권실천 계획 수립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등의 심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담당자 고희석, 237-0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